

주최 장재성선생기념사업회  
후원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 "한국전쟁 당시 광주지역 민간인 집단학살터 탐방 조사" (광주형무소재소자 및 보도연맹)

- 일시 2022. 10. 7(금) 오전 9시~오후 1시
- 탐방지
  1. 북구 양산동 장고봉
  2. 북구 동림동 시립장애인복지관 일대
  3. 광산구 도덕동 암탈골
  4. 남구 효천 양과동 문둥이골
  5. 남구 진월동 제석산 몰몽재
  - 6-1. 북구 장등동 도동고개 원태골
  - 6-2. 북구 장등동 도동고개 원태골
- 참여위원 8명  
한신원 박동기 고용호 나병남  
박창준 황광우 유미정 이지훈
- 탐방조사터 해설  
박동기(장재성선생기념사업회 조사위원장)

## 탐방조사 1

### 북구 양산동 장고봉

이곳은 양산동 산 99-1번지. 산 이름이 장고봉 또는 장구봉이라 합니다. 여기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100미터 서쪽으로 약 100미터에 걸치는 일대가 학살터였어요. 저 공단이 본촌산단이라 하는데, 본촌산단에 내촌이 있었고 외촌이 있었어요. 공단이 79년도에 완공되면서 여기 이 마을로 광주시청에서 이주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내촌이 된 것입니다.



1950년 7월 23일에 인민군 방호산<sup>1)</sup> 6사단장이 산동교 다리를 낮 12시에 건너오잖

1) 방호산(方虎山, 1916~몰년 미상)은 공산주의 항일운동가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인이다. 연안파로 분류된다. 1916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났다. 만주사변 직후에 중국에서 동북항일연군 제4군의 전신인 중국 공산당 헤이룽장성 밀산현(密山縣) 유격대에 합류하여 항일 운동을 벌이다 1937년 모스크바 식민지반식민지이억연구학원(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다녔다. 1939년 연안으로 온 뒤 1940년 항일군정대학 동북간부훈련반에서 수료하고 중국공산당 팔로군 일선부대에 파견되어 조선반에서 조선해방문제를 연구하고, 1945년 2월 연안에서 정식으로 개교한 조선혁명군정학교의 제1구대 협리원이 되었다. 1945년 11월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동북지방으로 이동하여 동북조선의용군 제1지대 정치

아요. 그때 국군은 이미 서울 지역에서 남으로 밀려 내려오죠. 그래서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좌익사범 및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에 협조를 하면 이 나라는 끝장이 난다고 간주하여, 이승만의 지시에 의해서 검찰총장, 국방부·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바로 이 자리가 제1 학살터인데 특이한 것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장재성 선생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학살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5일 <장재성기념사업회>에서 장재성 선생의 위령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1950년 7월 5일부터 22일까지 17일 동안 계속해서 차가 줄줄이 날랐어요. 한 트럭에 많으면 콩나물시루처럼 30명 적으면 20명 싣고 와서 하루에 두 번씩 계속 싸 죽였어요. 죽일 때는 손을 묶고 눈을 하얀 천으로 가리고 죽였어요. 왜 가리냐. 총을 쏘아 죽인 사람의 눈빛이 총을 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영원히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심리학 때문에 눈을 가리라고 지시를 한 거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다음에 휘발유를 치르고 시신을 태웠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흔적을 지우려고 태운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승만 반공 정권의 모습입니다.

---

위원으로 남만주 일대에서 군대 증강과 조선인 보호 등 활동하였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중국 공산당의 반국민당 전투에 참전하였다. 1949년 7월 조선인들이 절대다수인 중국인민해방군 제166사단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이끌고 입북하였다. 동 부대를 제6사단으로 개편하고, 초대 사단장이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제6사단을 이끌고 김포반도를 통해 제일 먼저 한강을 도하하였으며 충남과 호남 일대를 점령하였다.

## 탐방조사 2

### 복구 동림동 시립장애인복지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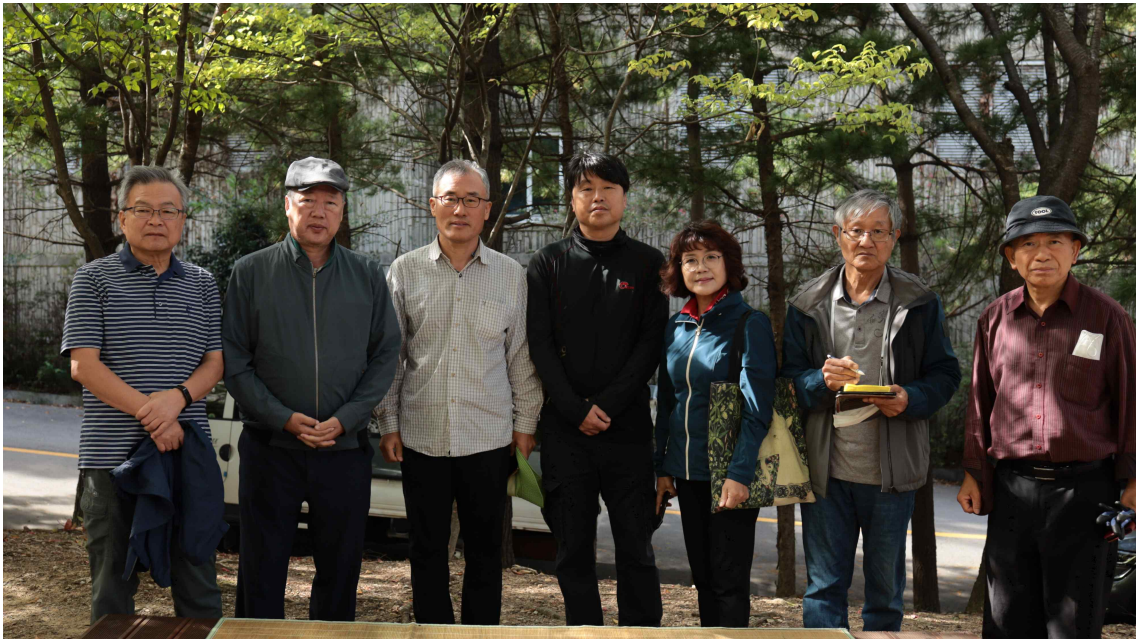
이덕우 선생은 광주 사범학교 출신이고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신 분입니다. 일제시대에 고등문관 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보수예요. 그런데도 총살을 당했어요. 왜 총살을 당했느냐. 맨날 사회주의 계열 좌익들의 변론을 무료로 해주니까 권력에 찍힌 거예요. 특히 그때는 경찰이 검찰보다 세력이 더 셧단 말이에요. 그때 경찰 간부의 80%는 친일파였어요. 여기 운암동에서는 보도연맹<sup>2)</sup>이 주로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덕우 변호사는 좌익이 아니었는데, 보도연맹원으로 형무소에 갇혀 있었어요.



- 2) 1949년 좌익 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한 반공단체로, 정식명칭은 ‘국민보도연맹’이다.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사상탄압에 앞장섰던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체제를 그대로 모방하였다. 1949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고, 서울에만도 거의 2만 명에 이르렀다. 주로 사상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거의 강제적이었으며, 지역별 할당제가 있어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정부와 경찰은 초기 후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무차별 검속(檢束)과 즉결처분을 단행함으로써 6·25전쟁 중 최초의 집단 민간인 학살을 일으켰다. 지금까지도 정확한 해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 고개 이름이 ‘불공(佛供)이 고개’이고 저 마을 이름이 ‘불공이 마을’인데, 아버지들이 말하기를 소신이 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산 이름이 운암산이에요. 구름 운, 바위 암. 높이는 131미터. 여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들어 있고. 당시는 아파트가 전혀 없었고 야산이었어요. 바로 앞에 운남동 한국병원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덕우 변호사를 죽였죠. 변호사의 가족이 시신을 찾으려고 산 너머에 사는 경상남도 하동군 출신의 김다울이라는 머슴에게 부탁했어요. 그 사람이 이덕우 변호사의 시신을 봤는데 경찰관이 와서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면서 머슴도 죽였어요.

저기 도로에서 보도연맹원들에게 빵을 주고 먹이면서 데리고 와 여기에서 총살을 시켰어요. 음식을 입에 물려놓고 총살한다는 것이 사람으로 할 일입니까? 먹이를 주면서 총살한다는 것은 사람을 동물 취급한 거죠. 증언자를 내가 5명을 만났어요.



2022년 7월 10일 날 그때 <장재성기념사업회>가 여기서 추모제를 했었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학살지입니다. 17일 동안 차들이 계속 왔어요. 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을 통제하였다가 학살이 끝나면 민간인 차량을 통과시켜서 산동교 다리로 건너가게 했어요. 지금 산동교 부교가 현재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지금 국도 1호선이죠.

여기에서 학살의 역사를 설명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나를 막 두들겨 팼라고 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재수대가리 없다고요. “귀신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자식들이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못 살게 된다.” 현실 이기주의적인 안목으로 역사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참 서글펐습니다.

인민군이 강을 건너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다리를 폭격했어요. 인근 5개 마을 사

람들을 동원해서 가마니에다가 모래하고 자갈을 넣어서 극락강에 얹혀서 그 위로 탱크가 지나갔지요. 1950년 7월 23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전투가 있었어요. 국군 26연대가 전투를 했는데 그때 경찰서장이 한 명이 죽었어요.

23일 12시에서 1시 사이에 도청으로 입성을 해요. 조선 노동당 전남도당은 화순군 탄광 노동자 100여 명을 끌고 7월 24일 도청 옆에 여관을 묶습니다. 그다음에 옛날 광주은행 본부 자리(지금 하나로 텔레콤 자리)로 옮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동의 최부잣집으로 옮겼다가 전남여고 역사관 2층으로 옮기게 됩니다. 8월 30일 금동 병무청으로 노동당이 옮기고 그다음에 9.28 후퇴 지시가 떨어지니까 9월 28일 날 증심사 대응전 앞에서 당 조직을 발표하고 백아산으로 들어가요.

### 탐방조사3

## 광산구 도덕동<sup>3)</sup> 암탉굴

여기가 그 유명한 암탉굴<sup>4)</sup>입니다. 보도연맹만 죽였던 곳이에요. 피가 흘러서 도로까지 흘러 내려왔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친 풀밭이라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가 도덕동 산 63-1번지입니다. 시국사범은 없고 보도연맹만을 대략 500명 학살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사람들이 기록물을 소각해 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저기 저 안테나 밑으로 여기 하얀 전주 있잖아요. 이렇게 이 광범위한 일대가 암탉굴입니다. 영광 가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 옛날 구도로가 있어요. 암탉굴 여기는 보도연맹만을 학살했던 가장 슬픈 곳입니다.

그러면 보도연맹이란 무엇이나? 보호 지도를 하는 연맹이라는 겁니다. 남로당 활동을 했다든지 또는 민주주의 민족전선 활동을 했다든지 또는 미 군정의 포고령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2.7 구국투쟁<sup>5)</sup>을 했다든지, 말하자면 미 군정에 저항했거나 이승만 초대 정부에 저항을 했거나 사회주의 운동가였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보도연맹에 집어넣었어요. 쉽게 말하면 일제 시대 대화숙<sup>6)</sup>이랑

3) 촌명의유래 : 덕산, 덕곡, 여남촌, 도덕교 등 작은 마을이 합쳐진 마을로 당시 마을을 관통하는 오운천에 설치된 다리를 '도덕교'라고 불렀는데 이 다리의 이름을 따서 '도덕(道德)'이라 부르게 되었다.

4) 세동은 마을이 닭장터인 장태형국이라 해서 '장태골' 또는 '시동(埽洞)'이라 불렀다. 외부에는 세동이 암탉굴로 알려져 있지만 세동 옆이 암탉굴이다. 22번 도로와 세동마을 사이가 암탉굴로 그곳 산의 형세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5) 1948년 5월로 예정된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을 앞두고 미군정 지역에서 단독 선거가 실시되어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반대하여 총선에 반대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남조선로동당이 이같은 여론을 선도했고, 이 사건 이틀 후인 1948년 2월 9일 백범 김구가 <삼천만 동포에게 읊소한다>라는 제목으로 단선단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이승만 계열 외에는 이에 동조하는 파벌이 적지 않았다. 미군정에 의해 불법화된 남로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총선 일정이 발표되자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2월 7일을 기해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을 일으켰고, 이 파업 중 일부가 과격화되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두 달 뒤에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온 제주 4·3 사건의 전초전이 되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수 14연대 반란 등 더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대사 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 ] 이칭별칭 대화숙(大和塾) 설립일시 1938년 7월 24일 해체일시 1940년 12월 28일 1938년에 조직된 친일 전향자단체. 조선사상범 보호관찰소의 외곽단체로 1938년 7월 24일에 조직되었다. 민족운동 또는 좌익운동과 관련된 사상 전력자 중 친일 변절한 자를 맹원으로 하였으며, 그 수효는 1939년 7월 30일 현재 2,765명에 달하였다.

똑같은 거죠.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황국 신민으로 만드는 곳이 대화속이었잖아요. 지금 이기흥 선생님도 그것과 관련 때문에 지금 독립운동가의 서훈을 못 받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보도연맹은 바로 대화속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오면 보도연맹원들이 협조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사전에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많이 죽었고 여기서 죽었던 피가 흘러서 저 신작로까지 흥건하게 고였답니다. 피비린내가 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었다는 증언을 제가 여러 사람한테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 땅 속에 유골이 있겠네요.” “지금도 있죠.”

“그럼 파야 되겠네요.” “파야 되죠.”



제가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한테 양산동 장고봉 보고서를 올렸고, 그래서 강기정 시장을 만나러 온 거예요. 장고봉 일대에 집을 지을 때 뼈가 집단으로 나왔는데 양산동 파출소에 유골을 신고했는데, 그다음에 유골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근식 위원장이 이것을 알려주라고 광주시장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저더러 보완 설명을 해주라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장재성 기념사업회의 운



영위원으로서 추모관을 광주시에서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더니 우선 표지석 추모비부터 만들잡니다. 추모회관 추모공원은 다음에 하자 이런 취지예요. 거기까지는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학살을 실행한 주체가 권력자 말고 우익 폭력 청년단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대한 청년단<sup>7)</sup> 줄여서 한청이라 그래요. 이범석 계열의 민족청년단 줄여서 족청이란 말도 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청이 대표적인 청년 단체였어요. 다 이게 반공 단체들이라. 경찰이나 군인들 앞잡이들이예요. 이 사람들이 동네 좌익들을 한청에 신고를 해서 죽였어요.



청년단들이 학살을 도와줬는데 죽이는 주체는 헌병대였어요. 헌병대 5중대요. 국가

---

7)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은 각지에 난립한 우익 청년단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우익 청년단체들은 좌익 청년단체들과의 경쟁에서는 큰 역할을 했지만, 정부 수립 이후 그 중요성은 이전보다 떨어졌다. 이승만은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덩으로 이범석, 지청천 같은 청년단체 지도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승만은 1948년 12월 19일 대동청년단을 중심으로 청년조선총동맹·국민회청년단·대한독립청년단·서북청년회[2] 등 전국 20여 개의 청년단체를 흡수·통합하여 대한청년단을 결성하였다. 대한청년단은 총재에 이승만, 최고지도위원에 장택상·지청천·전진한·서상천·노태준·유진산·강낙원, 단장에 신성모가 추대되었다. 이범석의 조선민족청년단은 처음에는 합류를 거부했지만, 이승만의 압박에 못이겨 1949년 1월 20일 대한청년단에 합류하였다. 이후 대한청년단은 족청계와 비족청계로 분열되었다.

에서 죽인 거죠. 여기 학살의 주체는 100% 국가 폭력입니다. 군인인 헌병단이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명예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학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념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없지 않습니까? 기념비 하나 표지석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영혼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광주 시민들 중에서 여섯 군데의 학살지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뿐입니다.

대학교 교수들 역사연구자 아무도 모르고 있고 시장 정치인들도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뭘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다음에 슬픈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정치인데 우리 광주는 지금 정치가 없습니다. 우리 묵념하고 갑시다.



탐방 조사 4  
남구 효천 양과동 문둥이골  
(최치원사당 지산재 인근)

남구 양과동 776번지가 우리가 지금 가는 목적지입니다. 거기를 ‘옥골재’라 하고 속칭 ‘문둥이골’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나환자 몇 명이 거기서 박혀 살았기 때문에 속칭이 붙은 것입니다. 정식 이름은 ‘옥골재’이고 그리고 번지는 양동 776번지입니다. 지금 길이 안 좋아요. 조심히 오세요. 주차할 곳은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776번지입니다. 속칭 ‘문둥이골’이고, 공식 명칭은 ‘옥골재’입니다. 이 일대가 보시다시피 좀 음산하잖아요.

광주 동명동 전남여고 후문 뒤에 광주 형무소가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1908년 개소를 했거든요. 1924년에 형무소로 개명되고 1961년에 교도소가 됩니다. 1971년 전남여고 뒤 광주 형무소가 문흥동으로 옮겨갔고 2015년에 삼각동으로 옮겨갔어요. 광주교도소 역사가 이렇게 되는데 당시 50년 7월 초에서 22일 사이에 엄청난 트럭이 이 앞까지 들어와서 헌병들이 총을 들이대서 이쪽으로 견제 한 겁니다. 대충 광주형무소에 4천 명이 있었는데 잡범들은 석방하고 사상범들을 석방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을 다섯 군데에서 분산 총살을 했어요. 그 숫자가 대충 생각할 때 3천 명으로 보고, 다섯 군데면 600명이란 말입니다.



원래 광주 형무소는 1,500명이 정원인데 지금도 광주 삼각동 교도소에는 1,50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구치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치소라는 것은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예비로 구속된 사람들이 수감 되는 곳이 구치소죠. 형을 받은 사람이 교도소로 들어가거든. 근데 광주에는 구치소가 없기 때문에 예비 수인들이 교도소에 같이 수감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초과할 수밖에. 한 방에서 4명이 있어야 하는데 8명이 있고 다 그런 뜻이라. 그때 당시에도 구치소가 없었기 때문에 형무소 수감 정원이 약 1,500명인데 군산에서 총살자들이 몰려오고 다음에 전주에서 오고 이래가지고 광주 형무소가 약 4천 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잡범을 1,000으로 보면 3,000이 좌익 시국 사범, 보도연맹이었다는 거요.



여기가 공식 명칭은 ‘옥골재’인데 문둥이 골짜기라고 합니다. 문둥이들이 여기에서 숨어서 밥 얻어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이 골짜기가 이렇게 계속 쪽 들어갑니다. 이곳이 양과동 776번지입니다. 옛날에는 ‘효천현’이라고 했죠. 양림동도 과거에는 효천에 속했어요. 최흥종 목사님, 서서평, 한샘병 환자들을 이쪽에서... 거기는 이 앞쪽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 뒤쪽에 저쪽에 있죠.

여기에서 한 사람이 살아 나와서 밤중에 맨발로 와서 쓰러져 불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일이에요?” 그랬더니 나 여기서 죽으려 하다 지금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잠을 재워줬어요. 그 잠을 재워준 사람 이름이 ‘최수걸’이라는 사람이에요. 1938년생이고 그 최수걸 선생님한테도 내가 증언을 받았고 여기는 여러 사람의 증언을 10년 전

부터 내가 받았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신상 때문에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학살터 여섯 군데를 모아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기 여기가 바로 학살통... 여기서 밭을 고르는 과정에서 뼈가 그냥 몽땅 나오고 풀을 뜯으려고 하면 낫 끝은 머리 해골, 머리 두피가 딱 잡혀서 낫을 빼면 해골이 팍 일어나고 이런 곳이야. 이렇게 다리뼈가 나오고.



지금 여기가 매장이 많이 돼 있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직 가지고는 이렇게 샅샅이 조사하기는 불가능한 거야. 여기서 묵념을 해야죠.



## 탐방 조사 5

### 진월동 제석산 몰몽재

광주형무소 수감자에 대한 학살에 대해서는 아까 열개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산 이름이 제석산입니다. 제석산을 넘으면 옛날 남구청이 나오고 봉선동이 나오죠. 제석산 저 왼쪽으로 끝까지 대동고등학교까지 이어집니다. 불교에 나오는 그 제석(帝釋)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저기 저 학동인가 소태동인가 고등학교가 있는데 동화여고까지 제석산이 길어요. 여기가 몰몽재예요.

5.18 때 장갑차가 이 앞으로 지나갔어요. 효덕동 진월동 일대에서 17명이 죽었죠. 이중으로 슬픈 곳이 이곳이에요. 한국전쟁 때 광주 형무소에서 역시나 사백명, 오백명 가량을 이 몰몽재에서 죽였어요. 여기에서는 유독 총살자 전원을 죽인 다음 휘발유를 부어 소각을 했어요. 자기들의 죄상을 없애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죠. 거창 사건에서도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질렀는데 그중에서 딱 한 명이 살아 나오잖아요. 여자분이 증언을 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알려지게 된 유일한 증언이에요. 이걸 조정래 작가가 만나서 소설 『태백산맥』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석’이라는 대대장이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사단장은 11사단장 ‘최덕신’이었구요. 삼랑진 초등학교에서 11 사단이 발족을 했어요. 11 사단은 빨치산 토벌 전문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불갑산이라든지 화순 화학산의 빨치산들을 십일 사단 부대들이 토벌했던 거예요.

헌병대 5중대가 당시에는 5여단 소속이었는데 5중대 헌병대가 광주형무소에서 사람을 끌어내서 여기를 포함하여 5군데에서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독 특징이 뭐냐 전원을 휘발유로 지껄여서 그 연기가 일대에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자연 마을이 3개가 있어요. 여기 건네 내려가면은 ‘꽃매’라 그래요 한자로는 ‘화산(花山)’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150m 내려가면 리치 아파트 일대를 원재라 하고 다른 말로는 점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옹기 그릇을 만들어서 팔고 그 애환이 담겨진 눈물고개를 건너면 문성고가 나와요. 오른쪽에는 옛날 구 남구청이 있었고 갖고 가서 이걸 팔았죠. 그 밑에 효덕초등학교 바로 위에 진제 마을이 있었어요. 자연 마을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세 마을 사람들을 내가 2013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다 돌아가시고 거의 없더라고요. 증언자가 딱 한 명이 살아 있었어요. 지금 어디 살아 있냐면 송화마을이라고 엘에이치 중 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내가 가끔 인사도 좀 하고 그러는데 거의 몰라요 이런 곳입니다. 진실화해위

원회에 물몽제는 보고가 돼 있어요.

근데 꼭 알아야 할 것은 노무현 때 진실화해위 1기가 떴고 현재 2기가 떴잖아요. 그때 노무현 정권 때 2005년도에 떴는데 금년 12월 9일이 또 2기도 신고 마감입니다. 지금 진화위 원장이 정근식 위원장님인데 지금까지 광주 형무소에 관련한 것에 대해 조사를 안 해왔어요. 참 한심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좌익 사범이 행방불명 됐다 하면 바로 이 다섯 군데에서 사라져간 사람들이에요. 광주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행방을 몰라요. 어디서 죽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돌아오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이 다섯 군데 중 한 군데에 묻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진실화해위가 대단히 게으릅니다. 참 걱정스러워요. 좀 비판도 하고 싶은데 정식 위원장님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입소문을 안 냈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많아요. 광주형무소 수인들이 총살을 당한 것을 조사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기 때도 안 했고 또 2기 때도 지금 현재까지 안 하고 있어요.

## 탐방 조사 6-1

### 북구 장등동 도동고개 원태골

여기 주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 산 280번지입니다.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요. 골짜기 명칭은 원태 고랑이지요. 팔 년 전에 가 봤는데 무지하게 깊어요. 이 마을 바로 밑의 마을이 용호마을이요. 용호마을 그 뒤가 장등 마을이구요. 그 오른쪽에 장동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월산 마을 그 다음에 분토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문강이라고 있죠. 신촌마을 그 뒤에 등촌 마을이 있고, 그 뒤에 2수원지가 있고, 그 뒤에 화한 마을, 그 다음에 금곡마을이 있죠. 16개의 마을이 있어 그중의 하나가 이 장등 마을인데 여기에서 사건이 난 거야. 1950년 7월 5일에서 20일 사이에 매일 매일 여기 와서 총살을 시켰던 거야.



동초등학교 62년생들이 동 초등학교 46회예요. 동초등학교 출신들이 이 골짜기에서 어렸을 때 깔을 했대요. 퇴비가 별도로 없는 마을에서 논에다가 풀을 베어 퇴비를 넣었는데, 낮 끝터리에 머리 해골이 딱 찍혀서 툭 나오는 것을 보고 그냥 풀을 베다가 뒤로 자빠져버렸대요. 고무 신발이 이렇게 내밀고 있거든요. 풀을 베다가 고무 신발이



딱 자기를 보고 있으니깐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이곳이 집단 학살지입니다. 이 고랑에서 도로를 놓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갑자기 포크레인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그런가 하고 가서 봤더니 그 밑에 해골 뼈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요. 여기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 도로를 넘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정성껏 차려서 제를 지었더니 포크레인이 그때부터는 고장이 안 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증언을 어디서 들었느냐 여기 현대 슈퍼 할머니가 전라북도 임실분인데, 1940년 생이고 아들 이름은 혁현인데 그 할머니한테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근방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한 맺힌 학살을 당한 거야.

## 탐방 조사 6-2

### 북구 장등동 도동고개 원태골

이 산 너머 원태골에서 많이 학살을 했어요. 여기 절 이름이 무령사인데 지금 한 10여 년 됐는데 이렇게 슬레이트집 비슷하게 아주 가난한 분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완전히 휘발유를 찌꺼어서 시신을 찾기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일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우리 아버지 옷 색깔이 빨간색이었어 앞니가 금니가 있어 그래가지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가난한 농부를 동원해서 우리 그 땅을 무료로 10년을 벌어 먹으시오, 그 대신 우리 아버지를 좀 찾아주소,라고 부탁을 해.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이걸 못 오고 인근 마을 사람들을 사 가지고 그렇게 그냥 논을 10년을 벌어 먹으시오, 이렇게 큰 배려를 해서 시신을 일부 찾아봤다라고, 내가 2013년도에 제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전남고등학교 교사였던 김정진 유족회 회장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전교조 출신이에요. 그분이 유족회 회장 하실 때 나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많은 곳을 같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